

## 한국 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김경희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 관한 특징을 추출하여 한국 아동의 정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의 초등학교생 498명(남자 아동 276명, 여자 아동 222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12개 정서의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과 통계적 분석으로 처리되었다. 유발 원인에서는 12개 정서에서, 표현방식에서는 놀람을 제외한 11개 정서에서 모두 학년차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 정서에 관한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른 심리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등 미래 연구 과제들이 제안, 논의되었다.

정서가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은 Wundt가 1879년 Leipzig에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한 후부터라고 보고 있다. 그 이후 정서는 인지, 성격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았던 연구영역이었으나, 1980년 이후 정서는 동기, 성격, 정서의 의미, 정서와 자기-조절등과 함께 활발한 연구과제로 되고 있다.

정서는 감정 (affect, feeling, Gefühl)과 동일한 용어로 또는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불안, 분노, 사랑 등의 감정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일정한 범주로 통합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Kellerman(1983)은 정서를 수용, 혐오, 기쁨, 슬픔, 기대, 놀람, 분노, 공포의 8개로, Izard(1991)는 흥미, 즐거운 기쁨, 놀람, 슬픔, 우울, 분노, 혐오, 공포-불안, 수줍음, 수치심, 죄책감, 사랑 등 12개로 정서를 범주화하고 있다. 현재 정서는 여러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광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정서 연구와 정서이론은 주로 정서의 생성문제와 정서 내용의 다양성을 차원화시키려는 시도에 집중되어 왔다. 예컨대 Darwin 이후에, Wundt는 정서를 세가지 차원의 결합체계, 곧 쾌-불쾌, 흥분-진정, 긴장-이완으로 보았는데, 이는

---

\* 이 논문은 1996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정서 연구의 고전이 된다. 정서 양양 원인에 따라 Rohracher는 정서를 동인적 정서, 감각적 정서, 그리고 성격적 정서로 분류했다(김경희, 1995, p. 12).

Schlosberg(1953)의 분류는 정서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Traxel(1962)은 유쾌한-불쾌한, 굴복-우월의 차원에 따라 제작된 척도를 사용하여 정서를 분류하고 있다.

Schachtel과 Singer(1962)는 인간이 직접 설명할 수 없는 생리적 흥분 상태를 상황에 대한 인지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즉, 생리적 흥분 상태는 선행된 상황에 의존해서 분노, 기쁨, 공포 등으로 체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서 연구는 심리학적, 생리적 모델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서에 따른 인지적, 정보이론적 과정에 관한 것과, 인공 두뇌적 피드백 원리에 관한 모델들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서 표현이 학습되고 사용되는 방식(Davitz, 1969), 지각된 자극과 그에 수반되는 경험과의 비교(예: 기억 내용, Sokolov, 1960), 정서에 의한 환경연상의 제한(Easterbrook, 1959), Arnold와 Lazarus(1966)에 의한 정서 평가에 관한 것이 이에 속한다. 인공 두뇌적 피드백 원리에 관한 것으로는 정서를 동질정체적(homeostatic) 조정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있다. Stampfl(1966)은 정서로 야기된 긴장 에너지가 자유 방출되어 정확의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Pribram(1967)은 개인이 정서 양양시에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 정서 연구의 문제점

정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어서 정의하기도 힘들고 측정의 문제는 더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서에 관한 측정법으로는 양적 기술보다는 질적 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가지 정서를 일으키게 한 사태에 관해서 많은 수의 자기-보고를 얻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잠

정적으로 정서를 야기시키는 사태의 범위와 정서 발생에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특징들과 관련된 확실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태의 범위와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덧붙여서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면 현실적 정보의 지침을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서 연구의 첫번째 문제점은 실험적 유도나 현장 관찰법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들 수 있다. 즉, 실험적 유도는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자아가 관여되어 있는 사태 특징과 사태를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Wallbott & Scherer, 1985). 현장 관찰법은 대부분 정서들이 갖는 사적인 본질과 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반응에 대한 예언도가 낮다. 따라서 Wallbott와 Scherer는 자기 보고된 정서-유발 사태의 대표적인 것을 수집하면 실험실의 조작이나 현장 관찰의 사태적 특징들을 선택할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서 연구의 두번째 문제점은 고도로 분화된 반응 유형을 갖는 기본 정서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Izard, 1977; Plutchik, 1980; Tomkins, 1962, 1963).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자들은 얼굴 표정(Ekman & Oster, 1989; Izard & Buechler, 1979), 감정 상태(Asendorpf, 1984; Izard, 1977; Schwartz & Weinberger, 1980), 음성 표현(Scherer, 1981, 1985, 1986)등과 같은 정서 요소의 제한된 하위 성소만을 연구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에게서 특수한 정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동시에 모든 종류의 정서 요소를 연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기-보고 기법을 통해서 정서 상태의 분화성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서연구의 세번째 문제점은 정서 반응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중요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차와 개인 특성(예컨대 성별, 연령, 성격, 지능 등)도 함께 고려하는 미래 연구가 절실하다.

정서 연구의 내번째 문제점은 정서 경험의 통제와 조절에 관한 것이다. 정서 표현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은 정서 연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Wundt(1905)는 문명인일수록 다른 사람의 기대에 자기 정서를 맞추려 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과 몸짓을 통제하고 특수한 감정의 가면을 쓰고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시도는 객관적으로 연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어떤 조절 과정은 의식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고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 정서 측정법으로서 질문지법

정서 연구에 사용되는 측정법에는 면접법, 질문지법, 그리고 투사법 등이 있는데, 질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정서적 경험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Plutchik & Kellerman, 1986). 정서적 경험을 질문지로 측정하는데 대한 회의가 있는데, 이는 "정서적 경험"이라는 주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질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질문지가 갖는 몇가지 문제점은 피험자의 자아 방어, 사회적 바람직성 효과, 반응 태도(set), 사회적 상동형(stereotype) 등에 기인한 반응 일탈을 들 수 있다.

최근 질문지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특수한 정서를 일으키는 사태나 사건들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로 부터, 어떤 한가지 정서에 대한 연구들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불안과 공포의 원인(Bernstein & Allen, 1969; Geer, 1965; Magnusson & Stattin, 1981, 1982; Rose & Ditto, 1983), 질투(Hupka, 1981), 분노(Averill, 1982), 수치심(Wicker, Payne, & Morgan, 1983), 그리고 주관적 경험된 생리학적 각성에 대한 연구(Pennebaker, 1982) 등이 다.

이상의 연구들이 사용한 질문지는 정서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Wallbott과 Scherer(1989)는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보다 포괄적인 질문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정서를 일으키는 사태의 특징,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 정서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적 특징(예: 강도와 지속 시간), 언어적, 표현적, 생리적 반응의 특징, 그리고 피험자의 통제 및 조절 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 질문지의 타당성 및 문항을 완성시켰다.

제 1차 연구는 1985년 Scherer, Summerfield와 Wallbott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번역해서 비교했는데, 신뢰도는 미국에서, 그리고 국가간에는 80% 이상이 었다.

제 2차 연구는 1986년에 수행되었다. 1차의 5개 국이외에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을 추가해서 8개 나라에서 시행되었다. 이 질문지는 개방형이었으며, 연령, 성별, 부모 직업, 학력, 사회 경제적 지위를 포함시켰다.

제 3차 연구는 같은 해(1986)에 8개 나라의 1,400여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2차 연구를 토대로 3차 연구의 질문지에서는 정서 지속 기간을 9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여 완성시켰다(Plutchik & Kellerman(eds.), 1989, pp 70-71).

세 연구 사이에 흥미있는 차이는 분노 반응과 경험의 통제에 대한 것이었다. 1, 2, 3차 연구에서 유럽내에서는 분노는 평균보다 더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자들(Scherer et al.)은 이러한 차이를 유럽의 사회적 규범이 분노 표현을 통제하도록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정서에 관한 유발원인과 표현방식을 연구한 김경희(1996)의 연구이외에, 아동 정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에 관한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연구 성격을 가지고 정서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에 관한 특징을 추출하여, 아동의 정서의 특징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정서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

이 사회화 과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므로 (Bowlby, 1973) 학년차가 있는지도 규명하고자 한다.

## 방 법

###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소재 명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 498명으로, 이 가운데 여자 아동은 222명, 남자아동은 276명 이었다.

다음 표1은 학년별, 성별로 본 조사대상자 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1. 학년별,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 수(N)

성 별	학 년						계
	1	2	3	4	5	6	
남	47	45	50	47	46	41	276
녀	41	43	36	34	34	34	222
계	88	88	86	81	80	75	498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개방형 질문지로서 Izard(1991)의 제언에 근거하여, 12개 정서들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에 대해서 피험아동의 경험한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 12개의 정서는 흥미, 기쁨, 놀람, 슬픔, 우울, 분노, 혐오, 공포-불안, 수줍음, 수치심, 죄책감 및 사랑이다. Izard의 12개 정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1995)에서도 일관적인 유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유발방식과 표현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정서의 중요한 지시자로 발견된대기인한다(Izard, 1991, pp.49-51).

###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1996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본 연구자와 3명의 자료수집원이 함께 초등학교

교장의 협조를 받아서 3회에 걸쳐 자율학습일인 토요일에 실시하였다. 1, 2, 3학년은 반구조적 면접법으로, 4, 5, 6학년은 질문지를 사용했으며, 소요시간은 70-80분이었다. 질문 내용은 어떤 경우에 기쁨(흥미...등)을 느끼며, 어떻게 표현하는가였다.

### 분석방법

#### 내용분석

12개 정서에 대해서 피험자가 기술한 정서유발원인과 표현방식은 본 연구자와 2명의 연구조원이 내용을 분석하여 범주화 했으며, 이는 1996년의 본 연구자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 통계적 분석

정서 유발원인과 표현방식에 대해서 반응의 빈도를 선출하고, 이 빈도의 차이에 성차 및 학년차의 여부는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빈도수는 아동이 반응한 것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서별 빈도수는 각각 다르다.

## 결 과

통계적 분석 결과 정서 유발원인과 표현방식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결과에서는 학년 차이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서 유발원인에서 기쁨과 수줍음에서 성차가 나타났다으므로, 결과에서 간단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 1. 흥미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흥미를 유발하는 원인은 신기한 대상, 성취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정서가 유발되었을때 고학년일수록,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 정서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에서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것이다.

표2. 흥미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학년						
		1	2	3	4	5	6	계
유* 발 원 인	신기한대상	n 81	74	70	69	71	65	430
	사물	% 18.8	17.21	16.28	16.05	16.51	15.12	83.01
	상취욕자극	n 7	15	15	15	12	24	88
		% 7.95	17.05	17.05	17.05	13.64	27.27	16.99
표** 현 방 식	계	n 88	89	85	84	83	89	518
		% 16.9	17.18	16.41	16.22	16.02	17.18	100.00
	적극적탐색	n 46	61	68	58	66	61	360
		% 12.7	16.94	18.89	16.11	18.33	16.94	75.63
	소극적 탐색	n 5	2	11	23	6	11	58
		% 8.62	3.45	18.97	39.66	10.34	18.97	12.18
	표현하지 않음	n 10	19	5	2	12	10	58
		% 17.2	32.76	8.62	3.45	20.69	17.24	12.18
	계	n 61	82	84	83	84	82	476
		% 12.8	17.23	17.65	17.44	17.65	17.23	100.00

\*  $\chi^2 = 11.825, P < .05,$

\*\*  $\chi^2 = 44.827, P < .001$

2. 기쁨

표3. 기쁨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학년						
		1	2	3	4	5	6	계
유* 발 원 인	인정받는것	n 21	20	22	19	15	101	
		% 3.95	20.79	19.80	21.78	18.81	14.85	16.89
	욕구충족	n 49	41	59	54	58	70	331
		% 14.8	12.39	17.82	16.31	17.52	21.15	55.35
	만족스런 대인관계	n 8	8	4	3	8	12	43
		% 18.6	18.60	9.30	6.98	18.60	27.91	7.19
	선물받는것	n 35	31	23	19	9	6	123
		% 28.4	25.20	18.70	15.45	7.32	4.88	20.57
	계	n 96	101	106	98	94	103	598
		% 16.0	16.89	17.73	16.39	15.72	17.22	100.00
표** 현 방 식	웃음	n 24	24	30	28	26	24	156
		% 15.3	15.38	19.23	17.95	16.67	15.38	26.58
	나름대로 표현	n 34	31	31	34	47	58	235
		% 14.4	13.19	13.19	14.47	20.00	24.68	40.03
	신체적 표현	n 5	23	27	26	31	16	138
		% 3.91	17.97	21.09	20.31	24.22	12.50	21.82
	표현하지 않음	n 28	16	4	6	7	7	68
		% 41.1	23.53	5.88	8.82	10.29	10.29	11.58
	계	n 91	94	92	94	111	105	587
		% 15.9	16.01	15.67	16.01	18.91	17.89	100.00

\*  $\chi^2 = 61.768, P < .001,$

\*\*  $\chi^2 = 73.239, P < .001$

기쁨을 유발하는 원인은 전체적으로 욕구충족

으로 나타났으나, 학년별 특징을 보인다. 즉, 1, 2학년은 선물받는 것, 3, 4, 5학년은 인정받는 것, 그리고 6학년은 만족스러운 대인관계가 가장 빈번한 기쁨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기쁨의 표현방식에서 1, 2학년은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3, 4, 5학년은 신체적 표현으로, 6학년은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다.

기쁨의 유발원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chi^2 = 12.028, P < .005$ ). 즉 남자는 욕구충족, 여자 아동의 경우는 만족스런 대인관계가 기쁨의 가장 빈번한 원인이다.

3. 놀람

표4. 놀람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학년						
		1	2	3	4	5	6	계
유* 발 원 인	예기치못한 사건 직면	n 23	19	27	46	44	53	212
		% 10.5	8.96	12.7	21.7	20.7	25.00	42.32
	감각적 신체적 자극	n 59	62	62	37	42	27	289
		% 20.4	21.4	21.4	12.8	14.5	9.34	15.97
표** 현 방 식	계	n 82	81	89	83	86	90	501
		% 16.3	16.1	17.7	16.5	17.1	15.97	100.00
	표현하지 않음	n 3	7	8	7	3	8	36
		% 8.33	19.4	22.2	19.4	8.33	22.22	7.89
	신체적, 언어적 표현	n 59	75	68	73	77	63	415
		% 14.2	18.0	16.3	17.5	18.5	15.18	92.02
	계	n 62	82	76	80	80	71	451
		% 13.7	18.1	16.8	17.7	17.7	15.74	100.00

\*  $\chi^2 = 51.245, P < .001,$

\*\*  $\chi^2 = 4.597, n, s$

놀람의 유발원인은 1, 2, 3학년의 경우는 감각적, 신체적 자극을 받는 것, 4, 5, 6학년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랐을 때 표현방식으로는 신체적, 언어적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1학년과 5학년에서 그러했으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람의 유발원인에서는 학년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이었으나, 표현방식에서 나타난 차이는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 4. 슬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불행한 사건의 인지결과가 슬픔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1학년과 6학년에서는 친구와의 갈등, 2,3학년에서는 꾸중듣는것, 4학년에서는 불행한 사건의 인지결과, 5학년에서는 이별이 슬픔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현방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는 것이 슬픔의 표현방식으로 가장 많았다.; 1학년은 표현하지 않는 것, 2,3학년은 우는 것, 4학년은 신체적 표현, 5, 6학년은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이 학년별로 나타난 슬픔의 표현방식의 특징이었다.

표5. 슬픔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범주		학년						계	
		1	2	3	4	5	6		
유*	이별	n	10	10	15	13	30	20	98
		%	10.2	10.2	15.3	13.2	30.6	20.4	15.43
	사망	n	30	31	29	22	38	25	175
		%	17.1	17.7	16.5	12.5	21.7	14.2	27.56
	불행한 사건의 인지결과	n	18	27	29	40	55	47	216
		%	8.33	12.5	13.4	18.5	25.4	21.7	34.02
	친구와의 갈등	n	13	3	8	9	8	16	57
		%	22.8	5.26	14.0	15.7	14.0	28.0	8.98
	꾸중듣는것	n	17	16	18	14	9	15	89
		%	19.1	17.9	20.2	15.7	10.1	16.8	14.02
계	n	88	87	99	96	140	123	635	
	%	13.8	13.7	15.5	15.4	22.0	19.3	100.00	
표**	울음	n	37	51	62	51	63	44	308
		%	12.0	16.5	20.1	16.5	20.4	14.2	54.90
	표현하지 않음	n	24	9	9	12	7	15	76
		%	31.5	11.8	11.8	15.7	9.2	19.7	13.55
	신체적 표현	n	9	8	9	14	16	4	60
		%	15.0	13.3	15.0	23.3	26.6	6.67	10.70
	나름대로 표현	n	5	17	3	14	43	35	117
		%	4.27	14.3	2.56	11.9	36.7	29.9	20.86
	계	n	75	86	83	91	129	98	561
		%	13.3	15.1	14.8	16.2	22.9	17.4	100.00

\*  $\chi^2 = 41.446, P < .005,$

\*\*  $\chi^2 = 82.677, P < .001$

#### 5. 우울

우울의 유발원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인관계등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학년에서 그러하다. 이외에 2학년은 욕구좌절, 3, 6학년은 혼자 있는 것, 4학년은 꾸중듣는것, 5학년

은 외적상황의 인지결과가 각각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우울정서의 표현은 전체적으로 신체적 표현이 많았으며, 4, 5학년의 경우에 그러하다. 1, 2학년은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3, 6학년은 나름대로 표현하는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우울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범주		학년						계	
		1	2	3	4	5	6		
유*	욕구좌절	n	10	28	11	18	11	17	95
		%	10.5	29.47	11.58	18.95	11.58	17.89	19.23
	외적상황의 인지결과	n	17	17	8	19	17	22	100
		%	17.0	17.00	8.00	19.00	17.00	22.00	20.24
	대인관계갈등	n	35	26	45	22	17	35	180
		%	19.4	14.44	25.00	12.22	9.44	19.44	36.44
	혼자있는것	n	13	7	20	7	10	19	76
		%	17.1	9.21	26.32	9.21	13.16	25.00	15.38
	꾸중듣는것	n	4	8	1	21	3	6	43
		%	9.30	18.60	2.33	48.84	6.98	13.95	8.70
계	n	79	86	85	87	58	99	494	
	%	15.9	17.41	17.21	17.61	11.74	20.04	100.00	
표**	신체적표현	n	20	31	32	35	28	24	170
		%	11.7	18.24	18.82	20.59	16.47	14.12	37.20
	나름대로 표현	n	10	25	33	30	21	42	161
		%	6.21	15.53	20.50	18.63	13.04	26.09	35.23
	표현하지 않음	n	38	25	14	19	10	20	126
		%	31.6	19.84	11.11	15.08	7.94	15.87	27.57
	계	n	68	81	79	84	59	86	457
		%	14.8	17.72	17.29	18.38	12.91	18.82	100.00

\*  $\chi^2 = 74.824, P < .001,$

\*\*  $\chi^2 = 46.147, P < .001$

#### 6. 분노

분노의 유발원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인관계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학년에 비해서 1, 2학년에서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불쾌한 상황은 4, 5학년에서, 욕구좌절은 3, 6학년에서 가장 많은 분노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등 학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현방식은 언어적 표현이 전체적으로 가장 빈번하였으며, 1, 5학년의 경우에 다른 학년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3학년은 분노를 나름대로 표현하는 비율이, 4학년은 공격적 행동으로, 그리고 6학년은 표현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높았다.

표7. 분노의 유발원인

		학년						
범주		1	2	3	4	5	6	계
유*	욕구좌절	n 3	12	13	7	13	16	64
		% 4.69	18.75	20.31	10.94	20.31	25.00	12.17
	불쾌한 상황	n 23	19	26	32	38	41	179
		% 12.88	10.61	14.53	17.88	21.23	22.91	34.03
	대인관계갈등	n 60	60	44	44	36	30	283
		% 21.23	21.20	15.55	15.55	12.72	13.78	53.80
계		n 86	91	83	83	87	96	536
		% 16.37	17.30	15.78	15.78	16.54	18.25	100.00
표*	표현하지 않음	n 11	7	8	10	8	15	59
		% 18.6	11.86	13.56	16.95	13.56	25.42	11.59
	공격적 행동	n 8	24	32	47	30	32	173
		% 4.62	13.87	18.50	27.17	17.34	18.50	33.99
	언어적 표현	n 39	37	21	31	42	30	200
		% 19.51	18.50	10.50	15.50	21.00	15.00	39.29
식	나름대로	n 4	20	15	4	15	19	77
		% 5.19	25.97	19.48	5.19	19.48	24.68	15.13
	해결	n 62	88	76	92	95	96	509
		% 12.11	17.29	14.98	18.07	18.65	18.86	100.00

\*  $\chi^2 = 32.659, P < .001, \quad ** \chi^2 = 54.635, P < .001$

7. 혐오

표8. 혐오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학년						
범주		1	2	3	4	5	6	계
유*	나보다 못한사람 (능력,외모)	n 4	15	24	18	6	7	74
		% 5.41	20.27	32.43	24.33	8.11	9.45	14.62
	부도덕한 사람	n 3	13	0	30	42	24	112
		% 2.68	11.61	0.00	26.78	37.50	21.43	22.13
	나를괴롭히는 사람	n 47	33	29	20	30	35	194
		% 24.27	17.01	14.97	10.31	15.48	18.04	38.34
원인	징그럽고보기싫은것 (음식,냄새,곤충등)	n 25	16	29	9	2	10	91
		% 27.41	17.58	31.88	9.89	2.20	10.99	17.98
	무개념적 반응	n 8	9	0	6	3	9	35
		% 22.88	25.71	0.00	17.14	8.57	25.71	6.92
	계	n 87	86	82	83	83	85	506
		% 17.77	17.00	16.21	16.41	16.41	16.80	100.00
표**	표현하지 않음	n 18	19	7	4	9	8	65
		% 27.68	29.22	10.77	6.15	13.88	12.31	13.03
	나름대로표현	n 11	20	29	25	25	42	152
		% 7.24	13.11	19.01	16.41	16.41	27.63	30.46
	신체적,언어적 표현	n 30	37	45	48	54	32	246
		% 12.21	15.00	18.21	19.51	21.91	13.01	49.30
방식	무개념적 반응	n 23	9	0	1	1	2	36
		% 63.88	25.00	0.00	2.78	2.78	5.56	7.21
	계	n 82	85	81	78	89	84	499
		% 16.41	17.00	16.21	15.21	17.81	16.84	100.00

\*  $\chi^2 = 155.820, P < .001, \quad ** \chi^2 = 116.045, P < .001$

혐오의 유발원인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1학년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징그럽고 보기 싫은 것은 1, 3학년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경멸은 2, 3, 4학년에서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1, 2학년의 약 1/4에 해당하는 아동은 혐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의할 점이다. 표현방식은 신체적, 언어적 표현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 4, 5학년에서 그리하다.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은 6학년에서 가장 빈번한 표현방식이었다.

8. 공포-불안

표9. 공포-불안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학년						
범주		1	2	3	4	5	6	계
유*	예기되는	n 16	26	13	23	23	37	138
		% 11.5	18.84	9.42	16.67	16.67	26.81	24.13
	불확실성	n 6	14	31	26	27	24	128
		% 4.69	10.94	24.23	20.31	21.09	18.75	22.38
	고립감	n 21	26	12	9	26	8	102
		% 20.51	25.49	11.76	8.82	25.49	7.84	17.83
원인	간접경험에	n 41	25	37	35	34	32	204
		% 20.11	12.25	18.14	17.16	16.67	15.69	35.66
	계	n 84	91	93	93	110	101	572
		% 14.61	15.91	16.26	16.26	19.23	17.66	100.00
	안절부절	n 29	39	38	35	48	38	227
		% 12.77	17.18	16.74	15.42	21.15	16.74	45.04
표**	나름대로	n 8	28	36	46	44	44	206
		% 3.88	13.59	17.48	22.33	21.36	21.36	40.87
	표현하지 않음	n 30	17	10	4	3	7	71
		% 42.22	23.94	14.08	5.63	4.23	9.86	14.09
	계	n 67	84	84	85	95	89	504
		% 13.21	16.67	16.67	16.87	18.85	17.66	100.00

\*  $\chi^2 = 58.104, P < .001, \quad ** \chi^2 = 85.157, P < .001$

전체적으로 공포-불안의 유발원인으로 간접경험 곧 학습에 의한 무서움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학년별 특징을 보면 1, 2, 5학년은 갑작스런 외적상황, 3, 4학년은 고립감, 6학년은 예기되는 불확실성이 공포-불안의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현방식으로는 전체적으로 안절부절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별로 나

타난 특징적 양상은 1, 2학년은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3, 4, 5, 6학년은 나름대로 표현하는 현상을 보였다.

### 9. 수줍음

수줍음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전체적으로 대중앞에 서는 것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4학년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치부가 노출되는 것은 1학년의 경우에 가장 빈번한 수줍음의 원인이며, 이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6학년의 경우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수줍음의 유발원인으로 나타났다. 수줍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신체적, 생리적 반응이 가장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수줍음의 유발원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성차가 나타났다( $\chi^2 = 15.070, P < .001$ ). 즉, 남자 아동은 치부노출, 대중앞에 서는 것, 새로운 상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아동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상황, 대중앞에 서는 것, 그리고 치부노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0. 수줍음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학년						
		범 주	1	2	3	4	5	6
유* 발 원 인	새로운 상황	n 28	18	19	12	26	37	140
		% 20.0	12.8	13.5	8.57	18.5	26.43	27.67
	대중앞에 서는것	n 21	40	31	53	38	25	208
		% 10.1	19.2	14.9	25.4	18.2	12.02	41.11
	치부노출	n 39	28	35	14	18	24	158
	% 24.6	17.3	22.1	8.86	11.3	15.19	31.23	
	계	n 88	86	85	79	82	86	506
		% 17.3	17.0	16.8	15.6	16.2	15.19	100.00
표* 현 방 식	신체적,생리적반응	n 63	47	39	35	42	28	254
		% 24.8	18.5	15.3	13.7	16.5	11.02	53.36
	나름대로 표현	n 4	30	38	39	35	43	189
		% 2.21	15.8	20.1	20.6	18.5	22.75	39.71
	표현하지 않음	n 4	8	6	5	2	8	33
	% 1.21	2.42	1.81	1.51	0.66	2.24	6.93	
	계	n 71	85	83	79	79	79	476
		% 14.9	17.8	17.4	16.6	16.6	16.60	100.00

\*  $\chi^2 = 53.808, P < .001,$

\*\*  $\chi^2 = 56.193, P < .001$

### 10. 수치심

수치심의 유발원인은 치부노출이 유일한 원인으로 보고되었으며, 2, 3학년에서 특히 그러하다. 표현방식은 전체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표현이 많았으며, 이외에 6학년은 나름대로 해결하는 경향이, 그리고 2학년은 표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수치심 정서는 초등학생에게 개념이 발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 2학년에서 뚜렷하다.

표11. 수치심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학년						
		범 주	1	2	3	4	5	6
유* 발 원 인	치부노출	n 71	77	80	64	62	59	413
		% 17.7	18.6	19.3	15.5	15.0	14.29	84.63
	무개념	n 15	11	4	14	17	14	75
	% 20.3	14.6	5.33	18.6	22.6	18.67	15.37	
	계	n 86	88	84	78	79	73	488
		% 17.8	18.0	17.2	15.9	16.1	14.93	100.00
표* 현 방 식	표현하지 않음	n 11	21	15	7	9	8	71
		% 15.4	23.5	21.1	9.86	12.6	11.27	14.49
	나름대로 해결	n 8	34	32	29	26	40	169
		% 4.73	20.1	18.9	17.1	15.3	23.67	34.49
	신체적,언어적 표현	n 36	31	31	35	36	26	195
	% 18.4	15.9	15.9	17.9	18.4	13.33	39.80	
	무개념적 반응	n 19	19	5	6	3	3	55
	% 34.5	34.5	9.09	10.91	5.45	5.45	11.22	
	계	n 74	105	83	77	74	77	490
		% 15.1	21.4	16.9	15.7	15.1	15.71	100.00

\*  $\chi^2 = 11.618, P < .005,$

\*\*  $\chi^2 = 60.475, P < .001$

### 11. 죄책감

죄책감의 유발원인은 도덕적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 유일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죄책감은 표현하는 방식은 신체적, 언어적표현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나타났으며, 표현하지 않는 것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6학년의 경우에 나름대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많았는데, 1학년은 전체 무개념적 반응 중 63%이상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1학년에게는 죄책감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표12. 죄책감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범주		학년						계
		1	2	3	4	5	6	
유발원인	도덕적	n 77	83	82	70	76	72	490
	구범위배	% 16.7	18.04	17.83	15.22	16.52	15.65	100.00
표현방식	신체적	n 28	52	41	45	53	43	362
	언어적표현	% 10.6	19.85	15.65	17.18	20.23	16.41	51.88
유발원인	나름대로	n 7	13	27	20	24	32	123
	해결	% 5.69	10.57	21.95	16.16	19.51	25.02	24.36
표현방식	표현하지 않음	n 20	18	15	12	10	7	82
	무개념적 반응	% 24.3	21.95	18.29	14.63	12.30	8.54	16.24
유발원인	무개념적	n 24	3	4	6	1	0	38
	반응	% 63.1	7.80	10.53	15.79	2.63	0.00	7.52
계	n	79	86	87	83	88	82	506
	%	15.6	17.03	17.23	16.44	17.43	16.24	100.00

\*  $\chi^2 = 105.258, P < .001$ .

12. 사랑

표13. 사랑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범주		학년						계
		1	2	3	4	5	6	
유발원인	부모 사랑	n 42	42	45	56	31	21	237
	%	17.7	17.72	18.99	23.63	13.08	8.86	48.37
유발원인	이성	n 10	9	13	8	14	27	81
	%	12.3	11.11	16.05	9.88	17.28	33.33	16.53
유발원인	우정	n 13	15	7	4	12	4	55
	%	23.6	27.27	12.73	7.27	21.82	7.27	11.22
유발원인	보편타당성에 의한 사랑	n 19	16	27	12	20	23	117
	%	16.2	13.68	23.08	10.26	17.09	19.66	23.88
계	n	84	82	92	80	77	75	490
	%	17.1	16.73	18.78	16.33	15.71	15.31	100.00
표현방식	표현하지 않음	n 33	23	16	19	5	16	112
	%	29.4	20.54	14.29	16.96	4.46	14.29	25.23
표현방식	신뢰로운 행동	n 5	19	12	19	28	33	116
	%	4.31	16.38	10.34	16.38	24.14	28.45	26.13
표현방식	언어적 신체적 표현	n 22	32	53	41	40	28	216
	%	10.1	14.81	24.54	18.98	18.52	12.96	48.65
계	n	60	74	81	79	73	77	444
	%	13.51	16.67	18.24	17.79	16.44	17.34	100.00

\*  $\chi^2 = 56.228, P < .001$ .

\*\*  $\chi^2 = 67.308, P < .001$

표13에 의하면, 사랑의 유발원인은 전체적으로 부모 사랑이 가장 빈번한 원인이며, 4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서 가장 그러하다. 학년별 특징을 보면, 1, 2, 5학년에서는 우정, 3학년에서

는 보편타당성에 의한 사랑, 6학년의 경우에는 이성이 사랑의 빈번한 유발원인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표현방식은 전체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표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년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1, 2학년은 표현하지 않는 것, 3, 4학년은 언어적 신체적 표현이, 5, 6학년의 경우는 신뢰로운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정서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서의 유발원인과 표현방법으로 나누어 논의 하기로 한다.

유발원인

흥미 : 흥미는 인지적, 지적 기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기적 정서이다. 신기한 대상·사물이 흥미를 끄는 원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Izard(1991, p.95)의 관찰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쁨 : 기쁨의 원인을 욕구충족으로 보고한 연구(예: Izard, 1991)와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되는 것이다. 고학년일수록 인정받는 것, 만족스러운 대인관계가 기쁨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 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 (김경희, 1996)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놀람 : 놀람을 유발하는 외적 조건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다(Izard, 1991 pp.177). 본 연구결과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놀람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Izard(1991), 김경희(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슬픔 : Izard, Hembree와 Huebner(1987)가 유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슬픔은 성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정서이다. 본 연구에서 슬픔의 원인에 관한

반응빈도(635개)가 다른 정서보다 가장 많았던 것은 정서교육 (혹은 감정교육이라고도 지칭되는)의 과제와 필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흥미있는 것은 대학생들과 다르게, 아동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원인이 “불행한 사건의 인지”라고 하는 것은 “동정심”과 유사한 정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은 자아-지향적인 경우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타인-지향적인 이타주의로 향하는 발달시기라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추후연구가 요청된다.

우울: 우울은 보편적인 심리적, 심리병리적 정서로서 슬픔과 비슷하게 상실(예: 자기존중감 상실, 직업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의 상실 등)과 관련된 정서로(Bowlby, 1973)우울한 사람은 특징적으로 이 “상실”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Izard, 1991, p.209).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갈등이 가장 빈번한 우울 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상실과 관계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두 변인과의 관계는 추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분노: 분노의 원인은 욕구좌절이나 불쾌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Izard, 1991, p.237), 본 연구에서도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결과에서 “대인관계 갈등”이 분노의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Izard(1996)의 보고와는 다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김경희(1996)의 결과와는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노에 관한 심리적, 문화적 변인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혐오: Rozin과 Fallon(1987)는 혐오의 기원은 음식과 관련된 것이며, 심리학적 오염대상에 대한 거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혐오의 원인을 부도덕한 사람, 징그럽고 보기 싫은 것(곤충, 음식, 냄새)이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Rozin과 Fallon의 주장과 김경희(1996)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되는 것이다.

공포-불안: 일반적으로 공포-불안의 원인은 예기되는 불확실성(Tomkins, 1963, p.66), 고립감

(Bowlby, 1969), 갑작스런 외적상황 (Schwartz, & Weinberger, 198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일치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보고된 것은 “간접경험을 통한 무서움”으로 이 결과는 초등학교 아동이 학습영향을 받는 민감기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수줍음: 수줍음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정서로서, 본 연구에서 대중앞에 서는 것, 새로운 상황이나 치부가 노출되는 것이 수줍음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수줍음의 유발원인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성차를 보인 것 또한 그러하다. 즉, 남자 아동은 치부가 노출되는 것을, 여자 아동은 새로운 상황을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보고했다. Jones 와 Carpenter(1986)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망(social network)이 좁다는 것과 Kagan과 그의 동료들 (Kagan, Reznick, & Snidman, 1988)이 수줍음은 타고난 기질적 성향 때문이라고 시사한 것은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수치심: 수치심은 분노나 공포와 같은 정서에 비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Ferguson과 Stegge (199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일찌기 Darwin(1872)은 수치심, 수줍음, 죄책감을 동의어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치부노출이 유일한 수치심의 원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후속연구로 보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죄책감: 죄책감은 다른 정서들과 같이 생물학적 진화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책임감의 죄의식의 기초가 되는 정서이다(Izard, 1991). 도덕적 규범 위배를 죄책감의 유발원인으로 보고 있는 본 연구결과는 Izard의 주장 및 김경희(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사랑 : 사랑은 감정과 사고 및 생물학적 추동도 관련되어 있는 “고도의 복합체”(Izard, 1991)로서 학자들조차 신비롭다고 할 정도의 정서이다. 청년들은 이성의 매력을 사랑의 유발원인으로 보고있는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6학년에서만 이성을 사랑의 유발원인으로 나타냈고, 부모 사랑이 가장 빈번한 것은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서 유발원인에서 6학년이 청년과 가장 유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유의할 만한 것이다. 유발원인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정서는 슬픔(635), 기쁨(598), 그리고 공포-불안(572)이고 가장 적게 반응을 보인 정서는 놀람(451)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되며, 정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12개 정서중에 성차를 보인 정서는 기쁨과 수줍음, 2개의 정서였다.

### 표현방식

우리나라 초등학교생이 여러 정서에서 나타낸 표현방식은 Izard (1991) 및 김경희(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 흥미가 유발되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 기쁠때 웃는 것, 놀랐을때 신체적 표현, 화났을때 언어적,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 슬플때 우는 것, 우울할때 행동이 위축되는 것, 혐오스러울때 피하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수줍을때나 죄책감을 느낄때 고개를 숙이는 것, 그리고 사랑을 느낄때 접근이나 신뢰로운 행동을 보이는 것등은 Izard와 김경희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Izard의 결과와 다른 것은 정서가 유발되었을때 표현을 하지 않고 억제하는 비율이 큰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정서는 우울, 분노, 죄책감, 사랑이다. 따라서 문화적 요인에 의한 차이로

간주되는 이러한 차이는 Bowlby(1973)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화 과정의 맥락과 관련시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서들을 억압하는 것은 자칫 정신병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Izard, 1991), 다른 심리학적 변인들과 관련시킨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쁨이나 슬픔등이 유발된 것을 지각하지 못하여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Schutz(1967, p.15)의 이론에 의하면, 정서를 지각하는데 장애요소로 아동 양육방식, 종교, 성역할의 미분화, 분리한 신체적 조건을 들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이 표현을 하지 않는 원인을 Schutz가 주장한 요인들과 관련시킨 연구도 필요하다.

기쁨, 슬픔, 우울, 분노, 혐오, 공포-불안, 수줍음, 죄책감이 유발되었을때 나름대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고학년에서 그러했다. 나름대로 해결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억제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를 쓰는것, 노래를 부르는 것, 음악을 듣는것, 또는 반성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혼자서 하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자는 “나름대로 해결(표현)”하는 것은 정서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능력이라고 보고자 한다. 달리 표현하면 정서의 자기-조절능력은 초등학교에서 완성단계에 있다고 보겠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개념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서는 수치심으로 나타났으며, 죄책감은 1학년 아동의 상당수에서 개념형성이 안된 것으로 (20%이하) 나타났다.

### 학년차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아동의 정서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을 알아보는 것이고, 학년차는 부수

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12개 정서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에서 학년차를 보인 것은 유의할 만한 것으로 앞으로 다른 변인들과 관련시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유발원인에서 슬픔의 원인이 “불행한 사건의 인지”라고 한 것과 공포-불안의 원인이 “간접 경험을 통한 무서움”으로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 아동이 학습의 영향을 받는 민감기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현방식에서 흥미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고학년 일수록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 수줍음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신체·생리적 반응이 감소하는 것, 사랑에서 고학년에서 신뢰로운 행동을 보이는 것, 그리고 기쁨, 슬픔, 우울, 혐오, 수줍음, 수치심등에서 고학년(5, 6학년)에서 나뉠대로 해결하는 것 곧 자기-조절이 빈번한 표현방식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화 과정과 연령등의 변인과 관련시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Ferguson과 Stegge(1995)가 언급한 바와 같이 수치심과 죄책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와 도덕성(morality)을 관련시킨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4세부터 8세 아동을 대상으로 5개 정서에 관한 강도와 대치가(opposite valence)를 알아 본 연구에서 8세 아동의 경우에 이 두가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가 시사한 바와 같이, 12개 정서에 관한 강도를 측정하는 연구도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김 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김 경희(1996).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Vol. 9, No.1, 1-14.  
 Arnold, M. B. (1960). Emotion and personality, Vol.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sendorpf, J. B.(1984). Lassen sich emotionale Qualitäten Verhalten unterscheiden? Psychologische Rundschau, 35, 125-135.  
 Averill, J. R. (1968). Grief: its nature and significance Psychological Bulletin, 70,721-748.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Darwin, C.(1965).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2nd authorize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ly published, 1872).  
 Davitz, J. R. (1969). The language of emotion. New York.  
 Easterbrook, J. A. (1969). The effect of emotion on the util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Psychology Review, 66, 183-201.  
 Ekman, P., & Oster, H.(1979).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0, 527-554.  
 Ferguson, T. J., & Stegge, H.(1995). Emotional states and traits in children : The case of guilty and shame. In :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Tangney, J. P & Fisher, K. W.(Eds.). Guilford Press : New York, NY, pp.174-194.  
 Geer, J. H.(1965). Th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fea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 45-53.  
 Jones, W. H., & Carpenter, B. N. (1986). In W. H. Jones, J. M. Cheeks, & S. R. Briggs(Eds.), Shyness: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 (pp. 227-238). New York : Plenum.

- Izard, C.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 Izard, G. E. (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s*. New York: Prenum Press.
- Izard, C. E., & Buechler, S.(1979). Emotion expression and personality integration in infancy. In C. E. Izard(ed.),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pp. 447-472). New York: Plenum.
- Izard, C. E., Hembree, E.A., & Heubner, R. R.(1987). Infant's emotion expressions to acute pain: Developmental change and stabi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10), 105-113.
- Kagan, J., Reznick, J.S., & Snidman, N.(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1-171.
- Lazarus, R. (1968). Emotions and adaptations. In W. J. Arnold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Nebraska.
- Magnusson, D., & Stattin, H.(1982). Methods for studying stressful situations. In H. W. Krohne & L. Laux(eds.), *Achivement, stress, and anxiety*(317-331). Washington, DC: Hemisphere.
- Pennebaker, J. W.(1982). *The psychology of physiological symptoms*. New York: Springer Verlag.
- Plutchik, R.(1980). A general Psychoevolutionary theory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London: Academic Press.
- Rozin, P., & Fallon, A. E. (1987). A perspective on disgust. *Psychological Review*, 94(10), 23-41.
- Schachter, S. & J. E. Singer. (1962). Cognitive, social and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 *Psychol. Rev.*, 69, 379-399.
- Scherer, K. R.(1989). Vocal measurement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4. New York: Academic Press.
- Schutz, W. (1967). *Joy : Expanding awareness*. New York : Carove press.
- Schwartz, G. E., & Weinberger, D. A.(1980). Patterns fo emotional responses to affective situations: Relations among happiness, Storms, M. D.(1973). Videotape and the attribution process: Reversing actor's and observer's point of 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65-175.
- Tomkins, S. S.(1962). *Affect, imaginary, consciousness*(Vol. 1): *The positive affects*. New York: Springer Verlag.
- Traxel, W. (1969). *Gefühl und Gefühlsausdruck*. In R.Meili & H. Rohracher (Hrsg.), *Lehrbuch der experimentellen Psychologie*. Bern-Stuttgart.
- Wallbott, H. G., & Scherer, K. R.(1985). Differentielle Situations- und Reaktionscharakteristika in Emotionserinnerungen: Ein neuer Forschungsansatz. *Psychologische Rundschau*, 36, 83-101.
- Wintre, M.G., & Vallance, D.D.(1994). A development sequence in the comprehension of emotions : Intensity, multiple emotions, and val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509-514.
- Wundt, W.(1905). *Grundzüge der physiologischen Pshchologie*(Vol.3).Leipzig, GDR : Engelman.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motion in Korean School Children**

Maria Kyu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emotion in terms of its causes and expressions. Subjects were 498 school children(222 girls, 276 boys). The instrument for this study was developed by the author as an open-ended questionnaire of emotion.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to chi-squares were applied to examine grade differenc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 Significant grade differences were found not only in the causes but also in the expressions of 12 emotions with exception in the expression of surprise. Since this study is exploratory in natur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and suggested.